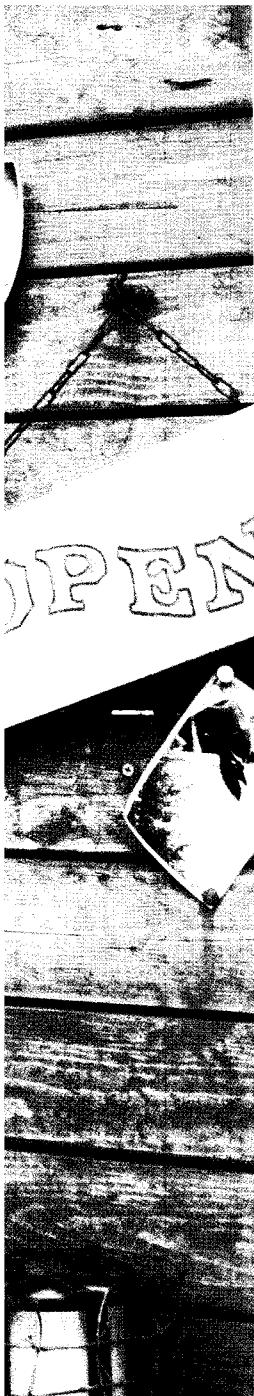


포토저널리스트 정은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장의 사진속으로”



WHO의 'STOP TB PARTNERSHIP'이 주최하고 다국적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후원한 '2008 결핵퇴치 이미지어워드'에서 한국인 사진작가 정은진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정은진 씨는 아프리카, 콩고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포토저널리스트로 결핵퇴치 이미지어워드 이외에도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결핵퇴치이미지어워드 대상 수상자인 정은진 작가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1년에 반 년 정도를 국외에서 보낸다는 작가를 세계 결핵의 날이 있는 3/4월호에 맞추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려울 경우 서면 인터뷰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섭외를 부탁한지 며칠 후 바로 연락이 왔다.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약속장소로 들어섰을 때 첫 인상은 '강단있어 보인다'는 것. 오랜 취재활동과 낯선 곳에서의 적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습일 것이다. 예들려 말하지 않고 묻는 부분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은 이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다음은 정은진 씨와의 일문일답. 글과 사진_박연숙(본지기자)

결핵퇴치 이미지 어워드 대상 수상 소감 한 마디

이번 대회에의 요구는 사진 이미지와 함께 전반적인 보건문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아프카니스탄 바닥산 주립병원의 산부인과병동에서 만난 카마르 여성에 관한 15장의 포토스토리로 제출했다. 총 51명이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획과는 다른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한다.

사진에 대해 설명하자면 결핵환자인 이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결핵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던 데다 여러 합병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산모의 사망은 흔한 일이다.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수천 명이지만 1년 동안 사망하는 산모 수는 2만5000명,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폐함 속에서, 또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이곳의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회 수상에 따라 상금과 더불어 결핵에 관한 추가 취재를 위해 지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있을 세계 결핵의 날 행사에 전시될 사진을 찍기 위해 브라질에 3주간 머물며 사진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을 찍게 된 계기

동양화와 3학년 때 사진수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사진을 공부하게 됐다. 미국으로 건너가 사진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포토저널리즘을 공부했다.

대학 시절 다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뉴욕 차이나타운의 경극단을 취재한 적이 있다. 이민 1세로 구성된 경극단원들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 중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주말에 모여 연습을 하며 공연을 갖고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취재하면서 다큐멘터리 작업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됐다.

그들을 취재하는 동안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사연을 매체로 전달하는 것이 꽤 의미있는 일로 다가왔다. 그 후 한국일보 미주지사에서 취재기자로 6년간 일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다면?

콩고의 여성들을 취재했던 것이다. 콩고 케세로 여성병동에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이 입원해 있다. 무장군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 중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운 좋게 살아남은 여성들이 이 병동에 입원해 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작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한 목사님께서 슬리퍼와 비누 등을 선물했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은 잊었는지 작은 선물에 춤을 추며 좋아하는 그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저 처참한 인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

결핵이미지어워드 관련 작품들은

언제 볼 수 있나?

3월 24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결핵의 날 행사에 전시된다. 이미 제출한 이미지 외에 추가 작업을 위해 브라질의 결핵 취재차 리우데자네이루에 3주간 머물며 촬영과 후반작업을 했다. 브라질도 결핵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가다.

WHO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콩고로 갈 것이다. 그 여성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보통 철저한 취재계획에 따라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어디든 가서 그곳에 머물며 아이디어를 얻고 취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에 대해 딱히 결정된 것 없다. 또 10년 20년 후에도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다. 누구든 자신의 앞일을 알 수 없듯, 나 역시 그렇다. 솔직히 힘이 많이 들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분쟁전문 기자라고 말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사진 지역에 많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그 분야만을 취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콩고에서의 취재도 그곳 상황이 그러했던 것이지, 자신은 그곳의 여성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취재한 것일 뿐이란다.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가 소외된 이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진실에 머물러 더 감동적인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

